

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



본당주소: Holy Family Church 584 W. Broad St. Columbus, OH 43215
 홈페이지: <http://www.kcolumbus.org>
 주임신부: 김충귀 베드로 신부 (badackk@yahoo.co.kr, 614-961-0980)
 총회장: 이봉모 바오로 (614-766-1990) 부회장: 최영자 레지나 (614-855-2167)

본당 소식

◆ 예비신자 찰고 및 세례 예식 연습

- 일시: 5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
- 장소: Holy Family Church

◆ 세례식

- 일시: 5월 4일 주일 미사 중
- * 예비신자들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고 합당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

◆ 오늘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.

◆ 복사단 부모 모임

- 일시: 오늘 미사 후
- 장소: Parish Center

◆ Parish Self-Study

- 일정: 8월 15일까지 교구청에 리포트 제출

◆ 성모성월 야외미사

- 일시: 5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
- 장소: Highbanks Park (Northern Shelter)

◆ 성모회 월례모임

- 일시: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

◆ 꾸리아 월례 모임

- 일시: 5월 4일 일요일 미사 후 2시 45분
- 장소: Parish Center

◆ 성지 순례

- 일시: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
- 장소: Our Lady of Consolation (Carey, OH)

◆ 김제준 구역모임

- 일시: 5월 3일 오후 7시 30분
- 장소: 구역장 자택

◆ 친교 준비 봉사자

- 4월 27일: 조우석 5월 4일: 연도홍

◆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.

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(614-302-3708)에게 문의하십시오.

◆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.

- ◆ 2008년 BAA (Bishop's Annual Appeal)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,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, 성소 개발,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.

지난주 우리들의 정성

주 일 헌 금	\$557.50
교 무 금	\$570.00
BAA	\$200.00

- 교 무 금: 서태수 고상식 최규선



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

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

기도하고 일하라

부활 제6주일 April 27, 2008



<보호자이신 성령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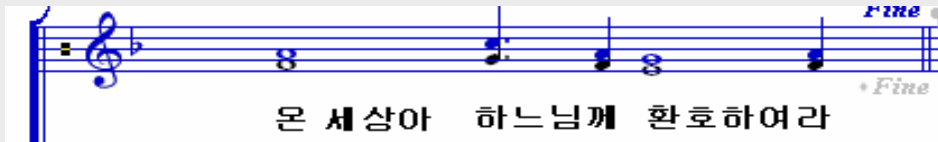
지거 괴더(1925-), 드로잉, 작가소장, 독일

“내가 아버지께 청하면,
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.”

오늘의 전례

제 1 독서 사도행전 8,5-8.14-17
 “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.”

화답송



제 2 독서 베드로 1서 3,15-18
 “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.”

복음환호송 ◎ 알렐루야
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,
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.
 ◎ 알렐루야

복음 요한 14,15-21
 “내가 아버지께 청하면,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.”



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

- 지향1)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
- 지향2)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
- 지향3)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

구역	지난 주일		합계	
김제준	단	명	1,445단	12명
이호영	270단	2명	8,535단	74명
정하상	단	명	3,485단	77명
황석두	60단	1명	6,325단	67명
김효임	10단	1명	1056단	28명
학생 구역	단	명	10단	2명
미사중	단	명	12,109단	10,315명
	340단	4명	2/22/04-4/20/08 (217주)	

☞ 총누계: 197,250단 12,668명
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.



봉사자 안내

	4월 27일	5월 4일
해설자	고상식	김오경
독서/봉헌	김효임 구역	정하상 구역
보편지향 기도	십자가의 모후	평화의 모후

오늘의 성가

♫ 입당: 493 ♫ 봉헌: 206
 ♫ 성체: 152 155 ♫ 파견: 129

주님의 강렬한 사랑이 있기에

안병철 베드로 신부, 서울대교구

“저의 남편은 외교관이었습니다. 어느 날, 다들 부러워하는 외국공관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가슴 터질 듯 기쁘고 행복했지요.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을 따라 나섰던 그 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. 참 행복했었지요.”

그렇게 말하는 스틸라 자매님의 얼굴에 왠지 모를 우수가 서려 있었습니다.

“딸이 하나 생겼어요. 얼마나 가슴조리며 기다려 왔었는지요! 그런데 기쁨도 기다림도 잠시 뿐... 가슴 벅찬 기쁨을 안겨 준 딸아이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답니다.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.”

그런데 그 때까지는 가정 일에 소홀하기만 했던 남편이 그 날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. ‘우리의 사랑 없이는 이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어.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부읍시다’라고 말하는 남편의 얼굴엔 왠지 모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. 생명을 갖게 된 첫 순간부터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이 아이에게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 여긴 남편은 과감하게 외교관직을 내 놓고 온 정성으로 딸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지요. 고국에 가서는 이 아이가 장애아라는 이유로 살아가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는 외국에 남아 살기로 하고 수년 간 살았습니다. 하지만 비록 이웃 사람들의 냉소와 무관심이 있더라도 내 나라 내 땅에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있게 귀국하게 되었고 오늘 처음 성당에 온 것입니다.”

그 자매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.

“그 아이로 인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,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? 그 아이는 장애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 그 자체입니다.”

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얼굴은 행복하게만 보였습니다.

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청하시겠다는 모습을 전해 줍니다.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.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.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‘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.’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‘우리 곁에서’가 아니라 ‘우리 안에’ 머무십니다.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,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

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. 그러니 ‘믿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’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

‘그 아이는 장애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 그 자체입니다’라고 한 그 부모의 말처럼,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는 ‘축복과 사랑 자체’인데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?